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신문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하나 된 건축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지원센터
Tel 02)3415-6840
Fax 02)3415-6898
kira100@kira.or.kr

ISSN 2636-1078

2006년 9월 9일 창간 안내 (02)3416-6962~6 ancnews.kr 제400호 2023년 6월 27일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

## 의무가입 설명회 개최…"의무가입은 건축사 직업적 위상 올리고 사회 공인 역할 위한 과정"

6월 27일 서울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에 참석해 건축사들이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의 '협회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해 듣고 있다. 오는 8월 3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를 앞두고 치러진 이날 설명회에 건축사들이 참석해 자리가 빼곡히 찼다.

### 대한건축사협회, 설명회 통해 중점과제·중장기적 플랜 공유

### '통합 건축사 단체 위상' 건축사 직업윤리 강화와 책임 위한 윤리규정 강조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6월 27일 건축사회관 1층에서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 의무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앞서 미가입 건축사를 대상으로 협회를 소개하고 회원가입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다. 미가입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유예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무가입을 추진한 이유는 건축사가 공인으로 인정받고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며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동반자 ▲K-건축의 실현 등 협회의 세 가지 장기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 3면 계속

## 7월 12일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 개최

### 건축물 안전, 품질 향상 제고와 건축 설계산업 정상화 모색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7월 12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 이력과 공공·민간 대가기준 일원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며, 이광환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장영호 기자

## 월간 '건축사', 오는 9월부터 교보문고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판매 추진…협회 '출판사업' 본격 전개

### 건축사가 국민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매체로 '건축사지' 적극 활용

대한건축사협회가 오는 9월부터 회지인 월간 건축사지를 교보문고·영풍문고·인터파크·YES24 등 전국 온·오프라인 국내 주요서점에 판매하는 등 출판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내 건축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협회 창립 이듬해인 1966년부터 창간, 발행해온 건축사지를 건축 및 건축사 대외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3면 계속

## 사 설

# 건축사신문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들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후 이듬해인 1966년 월간 건축사지가 창간되어 지난 6월 650호가 발행되었다. 대한건축사신문은 2006년 9월 '건축문화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제호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으로 바꿔 4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단순한 숫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의미를 담아 기념하고자 한다. 월간 건축사지가 회원들의 우수한 건축작품과 비평을 담고, 건축담론, 건축계 주요 인사 인터뷰, 에세이 등을 게재했다면,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들의 업무와 밀접한 정보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시작되고 건축사공제조합이 창립되기도 했으며, 건축사등록원이 만들어지고 2017년에는 UIA 세계건축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건축 관련 행사와 소식은 물론, 답사기, 건축사들의 생각을 담은 글과 소식들을 전하고 있으며, 대한건축사신문의 간단한 발자취는 이번 호 4, 5면을 통해 정리되어있다.

또한 대한건축사신문은 우리가 업무에 적합한 대가를 받고 전문가로서 존중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적하고 권리를 침해받는 등의 사례들을 신속하게 알려 함께 대응하도록 하여 우리 업무환경이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지면을 통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이 시행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협회 가입에 관련하여 몇몇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많은 회원이 이미 가입해 주셨다는 통계도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업무 환경과 제도들이 정상화되고 나아지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분들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협회를 통해 모든 건축사들이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되는 과제는 민간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항들이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디 협회를 통해서 제도로부터 보호받고 적당한 업무대가를 보장받으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을 배우고 여러 건축사들과 소통하게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담아내도록 하겠다. 종이 신문으로 전해지는 것에 더해서 온라인으로도 기사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온라인 기사는 링크를 통해 건축사 이외의 다양한 분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조만간 포털 사이트 미디어 등록을 통해 건축사와 관련된 기사가 수많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축사신문이 만들어지기까지 글 하나, 이미지 하나를 위해 많은 분들의 다양한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며, 많은 회원들이 앞으로도 대한건축사신문을 열독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 만드는 분들의 수고가 보람될 것이다.

## 시 론

# 코로나19, 건축 설계공모, 그리고 신진건축사

**위호진** 건축사
위 아키텍튼 건축사사무소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 정부는 많은 재난지원금을 풀었다.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GDP의 4.5%, 미국은 GDP의 25.4%를 지출했고 금리도 0.5%대로 유지했다. 덕분에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났다. 주식 및 부동산이 오르고 새로운 공사 현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건축업계는 아이러니하게도 호황이었다. 그러나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상승하자 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출이자가 인상되어 자금을 빌리기 부담스러워졌고, 예금금리도 높아져서 예금만 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을 지을 경우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대기 중인 상태로 바뀌게 됐다. 다시 말하면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민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없으니 '관'에서 진행하는 공공 건축사업에 관심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건축 설계공모전이다. 특히 신진건축사사무소는 소규모의 공공건축사업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그 근거로 프로젝트 서울을 간략히 분석해 보면 설계비가 약 3억 원대 이하인 공모전에 참여한 건축사사무소의 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1년 말부터는 선형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공모전의 개수가 급격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최근 평균 이상으로 많은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비 3억 원대 이하 설계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아마도 그들 중 많은 부분은 신진건축사사무소일 것이다.

건축 설계공모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심사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행히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설계공모의 부정을 뿌리 뽑는 것을 중점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기성 건축사도 부정에 대해 분노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부정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건축계의 부조리를 없애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마도 그 사이에 신진건축사사무소는 코로나19 후폭풍 때문에 민간에서 일을 수주하지 못하거나, 건축 설계공모에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차츰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신진건축사사무소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관행은 건축업계 전체의 경쟁력 개선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고질적인 관행은 개선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신진 건축사사무소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사를 조금은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가령,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에서는 중진건축사사무소와 신진건축사사무소를 연결하여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건축사들은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도 있고, 상호 간 업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을 추가하고자 한다. 협회에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공동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특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공유오피스 공간을 '공동구매'하여 신진건축사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일례로 성수동에는 KT&G 상상플래닛이란 공유오피스가 있다. 이곳은 KT&G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회사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공간이다.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치고 최대 3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공간을 임대해 준다면 신진건축사는 중진건축사사무소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것과 공유오피스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진건축사와 '기존 건축사'를 굳이 구별하여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일하던 시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딱히 관심도 없고 특별하게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처럼 인식했다. 그 이유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나 타지 않는 사람이나 동등한 보행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건축환경은 어떨까? 아마도 아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코로나19 후폭풍이 지나가고 동등한 '보행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신진건축사사무소가 버틸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면〈의무가입 설명회 개최…"의무가입은 건축사 직업적 위상 올리고 사회 공인 역할 위한 과정"〉에서 계속

석정훈 회장은 "건축단체뿐 아니라 건축계, 학계, 공무원 등 큰 틀에서 통합을 이루고, 국가적 건축 이슈에 전문가적 견해를 보태어 대안을 내는 노력을 더한다면 건축사의 직업적 위상이 올라감은 물론 업무대가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협회의 금년도 법령제도 추진 과제 가운데 중점 추진 과제인 '민간대가 기준 마련'의 시행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안이 공유됐다. 석정훈 회장은 "민간대가 기준 마련이 협회의 금년도 최우선 과제"라며 "민간대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협회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대가 마련 이후 협회는 ▲건축사 업무신고 제도 ▲설계도서 검토제, 연금제도 도입 계획 등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무가입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는 통합 건축사 단체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협회는 모든 건축사가 직업윤리를 갖추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윤리규정에 관한 강의도 진행했다.

현재 협회가 운영 중인 회원지원센터와 건축부조리신고센터에 관해서도 소개가 이어졌다. 회원지원센터는 회원의 업무 중 발생하는 법령질의, 유권해석, 고충민원, 제도개선 요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민원창구다. 협회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사안에 따라 총 3단계의 검토절차를 거친다. 협회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자문 변호사 검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협의와 검토 등을 통한 결과를 공유한다. 원활한 회원지원을 위해 자문 변호사 수를 2인에서 6인으로 확대했으며, 노무사와 회계사를 통해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대표 건축사 '8월 3일'까지**

**의무가입 완료해야**

건축부조리신고센터도 협회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명칭대로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건축사 업무와 자격, 협회 조직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또한 허가권자와 발주관청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건축사와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부조리 신고의 경우 조사위원회, 시도·중앙윤리 위원회를 거쳐 회원 징계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 발주관청의 불공정 행위의 경우 법제위원회와 자문변호사가 조치 방안을 검토한 뒤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공문발송과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대표 건축사라면 오는 8월 3일까지 의무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로 운영되는 사무소의 경우 대표 건축사가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사무소 재직 건축사나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가 공공기관에서 근무, 공무원, 교수 등이라면 협회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는 개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22년 8월 4일 기준으로 협회 미가입자도 오는 8월 3일까지 반드시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가입 신고는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시도건축사회에 가입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지역건축사회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조아라 기자

▶1면〈월간 '건축사', 오는 9월부터 교보문고 등…〉에서 계속

이를 위해 협회는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축사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눈높이를 맞춘 콘텐츠를 보완·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사지가 유가잡지로 전환하는 만큼 내년 초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우수콘텐츠잡지 선정·보급' 사업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간담회
## 건축법·건축사법에 따른 수탁업무 및 정책 현안 등 논의

지난 9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의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인 협회 기획운영처장, 강주석 법제정책처장, 국토교통부 박창준 사무관, 조관우 사무관, 박기범 건축문화경관과장, 이정희 건축정책관, 정태화 협회 부회장, 박성준 부회장, 윤희경 부회장, 정창호 이사, 정운근 협회 법제전문위원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열어 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기본법에 따른 협회 수탁업무와 더불어 건축사업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시험 ▲건축사자격등록 ▲건축사업무실적 ▲건축사보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보 및 감리원 등의 배치 현황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를 관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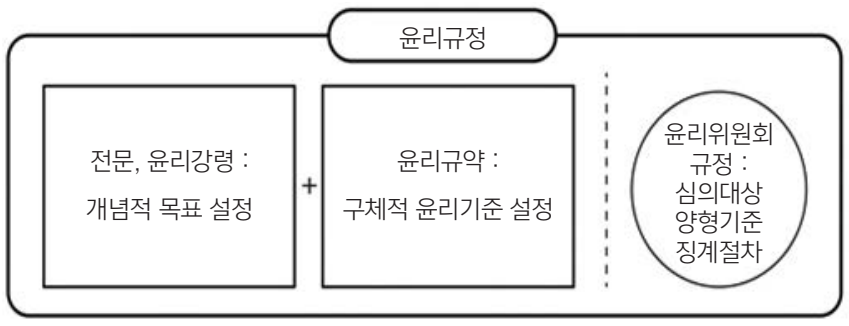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협회 수탁업무 관련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세부기준, 건축자재정보센터 내 자재데이터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 'k-건축' 홍보를 위한 연구·포럼·행사 개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외에도 건축사보 중복배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논의를 비롯해 협회가 개발 중인 '건축사보 중복배치 검증 프로그램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현안사항으로는 건축설계 표준품셈,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이 논의됐다. 장영호 기자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 / '건축사 윤리규정' 강연 _ 〈인터뷰〉 함인선 건축사(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특임교수,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 "새 건축사 윤리규정,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건축사회 구축, 사회적으로 건축사 위상 재정립하는 데 의의"

<윤리규정 구조>




"선진국에서 건축사들이 높은 사회적 위상을 가지며 존경을 받는 까닭은 높은 수준의 윤리규정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이 의무가입하는 통합건축사 단체 위상을 갖게 됨에 따라 협회는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 불공정한 부당행위 규제를 하며, 모든 건축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 윤리를 갖추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새 건축사 윤리규정 제정 관련해 건축사 윤리강령 TF 위원장을 맡았던 함인선 건축사(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특임교수,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건축사를 위한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정해 스스로 규율토록 한다"며 건축사에게 윤리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건축사협회의 역사 ▲새 건축사 윤리규정의 의의와 제정 경위를 비롯해 ▲국내외 건축사 윤리규정의 분석 ▲새 건축사 윤리규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에서 '새 건축사 윤리규정, 무엇을 담고 있나?'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 함인선 건축사의 강연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새 건축사 윤리규정 제정의 의의는 무엇인지요.**

선진국에서 건축사들이 높은 사회적 위상을 가지며 존경을 받는 까닭은 높은 수준의 윤리규정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사 직능과 건축사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규제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언적인 건축사 윤리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내용이 구체적 세밀하지 못했고 이행을 강제할 각종 절차(조사, 심판 등)의 정당성·권위를 얻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2022년 8월 4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시행됐으며, 새로운 '건축사윤리규정'을 제정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건축사 사회의 건축업무의 현장과 건축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와 관계자를 고려해, 건축사 사회의 공동체적 지향과 공정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건축사법에서 정한 건축사협회의 윤리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건축사 윤리규정'은 건축사의 직업윤리로서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 책임성, 분배 정의 등의 고전적인 윤리의식과 함께 환경 위기와 에너지 문제, 역사·사회·인문학적 도시문제를 포괄하는 사회적 윤리의식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건축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능으로서 건축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6월 27일 서울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에서 함인선 건축사(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특임교수)가 '건축사 윤리규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Q. 새 건축사 윤리규정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사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갖는 건축사 윤리규정은 ▲전문 ▲윤리강령 ▲윤리규약으로 구성되고, 윤리위원회 규정을 두어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종류,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윤리규약이 건축사의 업무수행 또는 협회 운영에 따른 금지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새로 제정된 윤리규정은 공공성과 사회, 직능 등에 관한 건축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고, 협회와 회원의 직업윤리에 대한 자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건축사법은 건축사협회 회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통합건축사 단체의 위상을 갖게 됨에 따라 협회는 공공성·공익성 실현, 불공정한 부당행위 규제를 하며, 모든 건축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 윤리를 갖추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에 대한 징계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9항에 따라 건축사의 윤리규정에 대한 위반은 법적 징계사유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위반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으로 협회 회원자격에 대한 징계 실효성이 갖춰져 협회는 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할 때, 회원에 대한 징계(경고, 회원 권리정지, 제명)를 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 시·도 건축사회에는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윤리위원회 산하에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경고, 회원 권리정지, 제명과 같은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를 협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400호 발간

# 발자취로 본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문화신문'이 모태…2015년 판형(베를리너)·2019년 제호 변경**

**건축기본법(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2017년 세계 UIA 대회 성공 개최, 2019년 건축사재난안전지원단**

**출범 등 건축사업계 소식 심도있게 전하며 함께 성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의 전신인 건축문화신문 창간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2023년 6월 28일 창간 400호를 맞았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문화신문'이라는 제호로 2006년 9월 9일 창간해, 국내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건축 관계자(건축사, 건축사보, 건축주, 시공자, 건축서비스 수요자 등)들이 업무활동에 필요한 건축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사들의 제언,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시대의 담론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창간 당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건축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려는 건축문화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축문화신문은 건축문화 생산의 촉매가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정부와 업계 간 언로로서 활발한 소통의 매개가 되어주시리라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지는 400호를 맞기까지 국내외 건축사 및 건축 산업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산업이 도약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학생기자단을 별도로 구성해 학부생들이 바라본 건축사 업계와 최근 학계 소식을 다뤘으며, 학생들이 개최하는 프로젝트, 전시회 등을 찾아 그들의 시선으로 본 사회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조명했다.

건축이라는 특정산업에 특화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지는 매체로서의 위상도 높여나갔다. 회원들 대상에서,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LH 등 발주처와 전국 대학교, 주요 도서관 등에서도 열독률이 높은 매체로 거듭났다. 이처럼 본지는 건축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로 성장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BIM 도입에 대한 기획연재와 지능화·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4차 산업 핵심 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매체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사 업계와 건축 산업계를 대변하는 전문 매체로,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온 건축사업계와 성장을 함께해 나가고자 한다.

**1호~100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으로 보는 건축사협회 주요 이슈**

**▲ 건축자재인증제도 시행 (본지 제5호)**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는 2006년 11월 건축자재인증제 안건을 승인했다. 자재인증제도는 건축사에게 보다 좋은 자재를 선택·권장할 수 있고, 표준 디테일과 시방서를 그대로 적용해 시간을 절약하며, 도서와 규격을 통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양질의 자재를 통해 질 높은 거주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건축계를 혁신할 수 있는 '건축기본법' 국회 의결(본지 제27호)**

2007년 11월 22일 건축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축기본법은 제1조에서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 적정한 대가 지급을 명시했으며,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문화 진흥사업에 국가재정지원 가능, 설계공모의 시행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첫발을 내딛다! (본지 제52호)**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설립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국거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을 하는 한편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건축사공제조합 창립 총회 개최 (본지 제99호)**

대한건축사협회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건축사공제조합'의 창립총회가 2010년 12월 6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앞서 협회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손해배상공제, 융자 업무 및 보증 등 전면적인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창립총회를 계기로 건축사공제조합은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상품 판매에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01호~200호**

**▲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제도 도입, 실무교육 의무화(본지 1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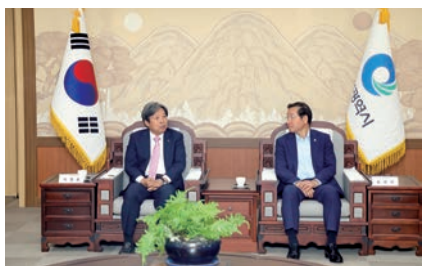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됐으며,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 2017년도 'UIA 세계건축대회' 서울 유치 확정(본지 119호)**

2011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UIA 총회에서는 '2017년 UIA 세계건축대

# 대한건축사협회, 2025년 개최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활동 본격화…인천시와 대회 유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건축사협회는 6월 21일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로부터 류운기 인천시 글로벌 도시국장, 한상을 초일류도시기획관, 유정복 시장, 석정훈 본협회장, 권연하 부회장, 윤희경 부회장, 오동희 전 국제위원장)



업무협약 체결 전 석정훈 회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21)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월 21일 인천광역시와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석정훈 본협회장과 권연하 부회장, 윤희경 부회장, 오동희 전 국제위원장은 인천광역시청 2층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만나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조직위원회에 참여해 업무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홍보활동, 협찬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또 대회장소인 송도컨벤시아와 인근 숙박시설의 대관과 함께 행사기간 교통통제 등 관련 업무에 대해 함께 발을 맞추게 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국내외 홍보활동·협찬기업 유치 등 업무 협력**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유정복 시장은 "선진국의 도시를 보면 건축은 기존의 단순한 건축을 넘어, 역사성을 가진 도시의 창조, 문화,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제 건축의 단기적 효율성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건축이 탄생할 수 있도록, 건축사 본연의 역할인 창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를 통해 인천시가 글로벌 (건축)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정훈 회장은 "인천은 건축적으로 대한민국 근대 건축의 역사와 기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창조하는 아시아 건축사들의 축제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건축사협회와 인천광역시가 함께 걷는 이 길이 건축사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회' 개최지로 서울을 확정했다. 서울은 싱가포르와 멕시코시티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유치를 위해 한국건축단체연합은 MOU를 체결하고, 서울시와 다각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했다. UIA는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돼 전세계 123개국, 130만 건축사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건축사 연합단체로, 3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되는 총회에는 건축사 및 학생 등 3만여 명이 참석한다.

▲ 건축사등록원 현판식 갖고 본격적인 업무 가동(본지 제135호)

2012년 5월 31일 건축사등록원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건축사등록원은 공공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건축사 업무수행 지침을 개발, 시행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및 하위법령 시행 관련(본지 제174호)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13년 6월 제정돼 2014년 6월 시행됐다. 건축서비스법 하위법령이 마련돼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과 지식재산권 보호, 설계의도 구현, 건축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본지 제197호)

2015년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965년 10월 23일 개최된 창립총회의 128명 건축사 회원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9,369명이 되었고, 협회는 건축사등록원과 건축사교육원, 건축연구원, 건축사공제조합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는 체계화된 전문조직이 됐다.

201호~300호

▲ 건축사, 대한민국 국회입성 '첫 발'(본지 제228호)

사상 최초 건축사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안산시 상록구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김철민 건축사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철민 건축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시장을 역임한 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시장 재임기간에는 공약 97건 가운데 90%인 88건을 완료했으며, '일 잘하는 시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 건축자재정보센터, 자재시장 정보허브로 '활짝'(본지 제257호)

부실설계·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착공도서에 자재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건축자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 다운로드해 자재를 표기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구축했다. 건축자재정보센터는 건축자재 분류체계에 따라 자재를 분류하고 개별자재의 기술정보, 생산·공급업체정보, 카탈로그, 시방서, 인증·특허, 시험성적서, CAD·BIM 도면 등을 제공한다.

▲ 'SOUL OF CITY'…'대한민국 건축' 세계 중심으로(본지 제262호)

2017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축계 올림픽 '2017 UIA 서울 세계건축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도시의 혼'이라는 주제 아래 학술대회와 전시, 강연, 공개 토론회, 건축 문화 투어 등 총 55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건축사 5,600여 명을 포함한 세계 124개국의 건축사, 학생, 교수, 일반시민 등 총 1만 700여 명이 다녀갔다.

301호~4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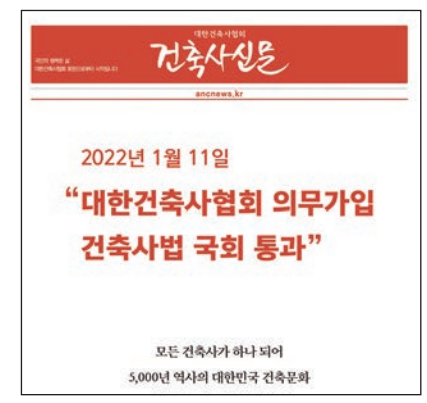
▲ 건축사로서 재난현장 지원한다…'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출범(본지 제302호)

대한건축사협회가 2019년 5월 16일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재난안전지원단의 출범은 건축사들의 구호활동을 조직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려는 데 의미가 있다. 평상시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자문하는 등 사회적 수요에 맞는 봉사활동에 나서며,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상된 건축물을 점검하거나 안전평가를 내리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재난안전지원단은 건축사가 건축 전문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공인으로 국민 속에 자리하는 계기가 됐다.

▲ 2022년 1월 11일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국회 통과"(본지 제366호)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22년 만에 확정됐다. 2022년 1월 11일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는 법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의무가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관리와 자율적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건축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정부에서 공적 위탁 업무 외에도, 국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건축사의 공익적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건축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문화 구축에 앞장서야 할 의무도 주어진 셈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후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 2월 3일 '건축사의 날' 선포(본지 제391호)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공포 1주년을 맞아 대한건축사협회는 2023년 2월 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또한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시행공포 된 날을 '건축사의 날'로 선포했다. 의무가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건축계의 화합도모와 협회의 새로운 각오를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박관희 기자

# 국토부, 8월 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불시단속 진행…적발 업체 강력 처분 예고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무등록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 42건 적발,**

**전체 단속 건수의 72.4%**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6월 재발의 추진 방침**

국토교통부가 8월 30일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의 불시단속을 이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했다.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단속을 이어가며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아라 기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안내

2023년도 현재 관리받고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력관리비를 납부하시고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관리 납부방법**

- 온라인 : 건설기술인 인터넷경력신고 홈페이지(work.kira.or.kr)
  건설기술인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cert.kira.or.kr)
- 오프라인 : 본 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통한 납부

□ **미납자에 대한 제재**

2012년도 이전의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정기관리자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 타 수탁기관 이관 및 경력수정, 경정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 02-3415-6842~8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건축 질의회신 Talk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 법 조항 | 하위 조항 | 회신일 |
|---|---|---|
| 산지관리법 제18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2016.6.23 |

**질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옹벽에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는지?

**회신**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라 옹벽에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에는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 법 조항 | 하위 조항 | 회신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 - | 23.4.21 |

**질의 요지**

지구단위계획상 지구단위구역 안에 주차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없이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같은 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도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과 제54조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서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본문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2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건축제한과 동일한 용도 및 종류 등의 제한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및 종류도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는 주차장을 기반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이 아닌 기반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2조 제1항과 제54조 본문에 따라 주차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에서는 주차장 용도의 '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도 같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업무대가 산정시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의 의미

| 법 조항 | 하위 조항 | 회신일 |
|---|---|---|
| 건축사법 제19조의3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 22.3.31 |

**질의 요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 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바, 해당 조항 중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의 의미

**회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함)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는 각기 규모와 구조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계업무대가는 '[별표4]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따라 산정한 각 건축물의 설계대가를 합산토록 한 것이며, 규모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등의 치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한편, 대가기준 제11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따라, 발주자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일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된 설계업무의 대가 범위 내에서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수상 그 후 ㉔

# 2022 광주광역시 건축상 민간부문 우수상 'YANGLIM AVENUE'

### 한옥과 서양식 건물 어우러져 온 광주광역시 양림동 새로운 상징
### 역사적 공간 양림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자리 잡아
### 설계자 김성우·이봉주 건축사
### "도시와 시·공간 연속성 및 확장성 갖는 건축 지향"

해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새로 지어진 건축물 중 탁월한 작품을 선정해 건축상을 수여한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기마다 건축문화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스물네 번째 작품은 2022 광주광역시 건축상 민간부문 우수상 수상작 'YANGLIM AVENUE'이다.

광주광역시 양림동(楊林洞)은 사직산과 양림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남쪽 사면(斜面)에 자리 잡은 0.68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주거 지역이다. 양림(楊林)의 어원은 '버드름'에서 시작됐는데, 버드림이란 산 능선이 밖으로 뻗어나간 것을 의미한다. 양림산에서 시작된 산 능선이 광주천에 닿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양림동은 한옥과 서양식 건물, 근대화 시기 선교문화 유적지, 400년 된 호랑가시나무 등 여러 문화재가 어우러진 곳이다. 광주광역시의 양림문화마을 소개를 보면, 1904년 광주읍성 밖 광주천 건너에 있는 양림동에 유진 벨, 오웬 등 서양인 선교사들이 모여 교회, 학교,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기독교 복음 전파의 터전이 만들어졌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곳 양림동에 '근대역사 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양림마을 만들기'라는 비전을 앞세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했다. 2022 광주광역시 건축상 민간부문 우수상 'YANGLIM AVENUE'(설계자 김성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공유, 이봉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위가)는 사업이 진행된 양림동 도시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어진 건축물로 미래 양림동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건축물은 역사적 의미가 큰 이곳을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가로 좁게 맞닿은 경계에 자리 잡았다.

YANGLIM AVENUE 전경 〈설계자=김성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공유, 이봉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위가〉 사진=김현수(HANS)

설계를 담당한 김성우·이봉주 건축사는 "역사를 품은 땅의 역동적인 기운을 건축에 담고자 했다"며 "건축물이 정지된 물질적 덩어리가 아닌 대지 형상을 따르는 역동적인 형태로 구성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접지층의 필로티는 가로와 건축물이 만나는 외부적 성격과 동시에 내부적 성격도 가진 중성적 성격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설계자 김성우 건축사는 설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위가건축사사무소 소속 김대욱 씨에게도 특히 감사를 전했다.

다음은 설계자 김성우·이봉주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 김성우·이봉주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Q. 'YANGLIM AVENUE'을 설계하게 된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뒀던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양림동은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로서 문화 유적이 산재해있으며, 근대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와 문화를 꽃피웠던 곳으로 장소적 의미가 큽니다. 또한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흔적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온 광주의 시간과 기억들이 적층 돼 있는 곳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역사적 도시와 가로에 대한 건축적 태도로서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된 건축, 도시와의 시·공간적 연속성 및 확장성을 갖는 건축개념으로서 역사 가로와 상호작용하는 건축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Q. 그렇게 염두에 뒀던 점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요?**

자연발생적인 가로구조를 갖는 양림동에서 가장 긴 통경축(약 400m)의 남북방향 가로에 접해있는 대지로서 시각적 개방감 그리고 조망점(양림교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건축선에서 셋백(Set-Back)해 건축물을 배치했습니다. 조절된 둘러쌈을 통해 보행 흐름을 늦추고 체류시간을 지연해 보행자가 더욱 풍성한 주변의 시·공간적 기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단힌 노출콘크리트 정면 전면은 역사가로를 통한 양림교회로의 시각 축을 강조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구부로 구성하고 무채색의 물성을 부여했습니다.

공공에 개방된 외부 계단, 옥상정원은 도심 속 전망대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수직적으로 확장된 가로로서 레벨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시퀀스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축적 장치(anchor-facility)로 작동됩니다. 대지 형상에 따라 주변의 낮은 건물들을 감싸 안고 내부까지 확장, 연결된 수직 골목길은 주변의 경관을 실내로 끌어들여 다양한 시각적 소통 요소이면서 동시에 사적 영역을 유연하게 분리해 주는 완충공간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접지층의 필로티는 가로에 건축물이 대응하는 외부이면서 동시에 반 내부적인 중성적 공간이 됩니다. 이는 보행자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감을 갖게 하고 사람들이 접촉하여 만나는 방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가로를 흥미롭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외부에서 연결된 수직가로의 흐름을 바탕으로 내부 공간은 스플릿 플로어로 구성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레벨의 변화를 통해 동적인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층층이 나누는 단편적인 단면구조가 아닌 층의 구분이 모호한 흐름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Q. 설계를 시작하면서 중점을 둔 설계의도를 설명해 주신다면?**

양림동을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가로에 좁게 면한 동서방향의 불규칙한 경계를 가진 땅으로서 그 땅의 역동적인 기운을 건축에 담고자 했습니다. 건축물이 정지된 물질적 덩어리가 아닌 대지 형상을 따르는 역동적인 형태로 구성되고 공간을 이루는 벽과 판들이 유영하듯 대지에 자리하도록 했습니다. 정지된 정물화가 아닌 입체파의 그림과 같은 시공간이 담긴 건축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Q. 최근 YANGLIM AVENUE에 들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건축물을 실제로 체험했을 때 설계 시 의도했던 흐름과 시각적 시퀀스가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반듯한 땅이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역동적인 건축, 그러면서 시선이 외부로 확장되는 유연한 공간구조가 잘 실현된 것 같습니다.

**Q. 지난해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역사적인 땅에 나름의 도시적, 건축 공간적 의도가 구현된 건축물로서 건축상을 받은 것은 그러한 설계 의도 구현 노력에 대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건축 NOW - FRAMEWORK FOR DESIGN EXCELLENCE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AIA 설계 프레임 워크

건축사는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대외적 상황 속에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이 건축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달라진 환경 변화에 미국건축사협회(AIA)는 '탁월한 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건축사들과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건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건축사신문도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며 확장된 시각을 나눠보려 한다.

아홉 번째로 '변화를 위한 디자인'을 다룬다. 기후위기를 비롯해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불확실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 ⑨ 변화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Change

이제 건축사는 설계에 앞서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계와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AIA는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사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탄력적인 설계 전략의 추구다. 설계의 탄력성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건축물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 자체에 내재성과 유연성을 갖춰야만 자연 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건물의 사용 수명이 끝난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건축물이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 볼만 하다. 상업 시설이라면 냉난방과 같은 자원 공유,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동적 생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주거 공간이라면 대피소를 설계하고 식량과 물을 저장하는 공간과 통신 서비스 등의 설치를 생각할 수 있다.

수동적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중요하다. 수동적 생존 가능성이란 건축물 혹은 구조의 구성 요소가 자연적, 인공적 재난 발생 이후에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손상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건축사는 이를 위해 건축물의 성능과 목표, 예상 시나리오 등을 정리한 뒤 백업 전원이 필요한 중요 인프라와 서비스를 식별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 흔하게 발행하는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광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건물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 식수 확보를 위해서는 빗물 수집과 여과, 음용수 저장 등을 사전에 평가해 식수 공급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한다. 최소 일주일간 공급할 수 있는 식량 저장 공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축사는 수동적 생존의 가능성이야말로 평등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청소년, 노인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파악해야 한다. 위험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지진, 산불, 홍수, 전염병, 가뭄, 폭염, 토네이도,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등 환경적 요인이다. 치안 불안, 공공 서비스 중단, 인프라 노후화, 도시 정전, 총기 사건, 전쟁 등 사회적 요인도 있다. 건축사는 기본 설계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기후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 **건축물이 사회,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미래의 위험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변화하는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건축물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건축물이 현재와 미래에 유연하게 활용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건축물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압력을 받기 쉽다. 그런 만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시대를 포괄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내부 내력벽이 없는 높은 천장과 깨끗한 공간으로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기둥, 측면 시스템, 바닥 높이 등 미래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용이한 해체를 위해 용접보다는 볼트 연결을 사용하고, 내부 벽을 비내력으로 만들거나 석고 벽판 파티션을 사용해 재활용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AIA는 하와이 오아후 포드섬에 위치한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다니엘 K. 이노우에 지역센터를 유연성과 적응성, 수동적 생존 가능성 등 탄력적인 설계를 반영한 훌륭한 사례로 꼽는다. 인간과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건축물은 자연 재해나 인재 발생 시 비상 대응도 가능하다.

NOAA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 격납고로 쓰이던 건물을 재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 문화와 생태계를 통합하는 고성능 연구와 사무실, 캠퍼스 등으로 사용된다. 이곳에서는 태평양 쓰나미 경고센터를 비롯해 환경 예측, 해양 관리 업무 등이 진행된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NOAA는 해수면 상승과 폭풍, 홍수 등으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가 적용됐다. 자연 재해나 인재 발생 시 NOAA는 비상 대응, 의료 및 군사 방어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패시브 시스템, 채광과 건물 중앙의 백업 발전기로 3일간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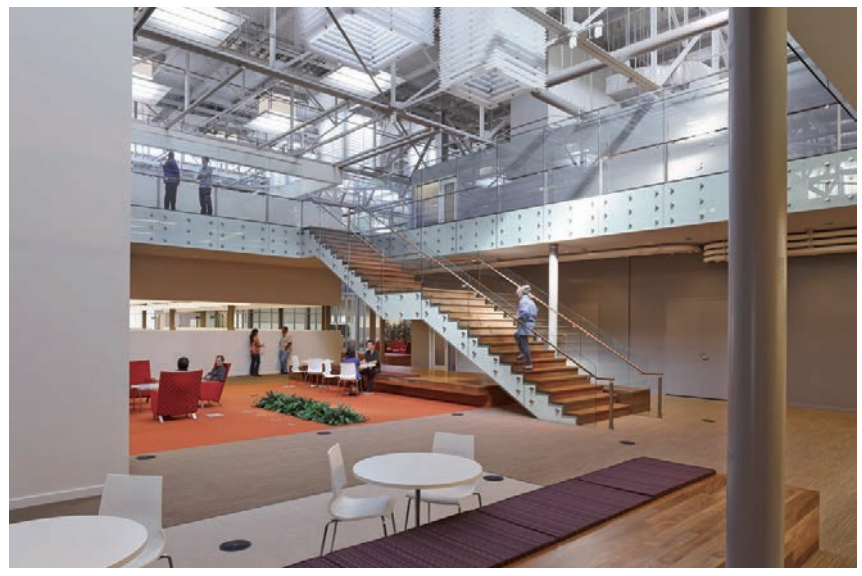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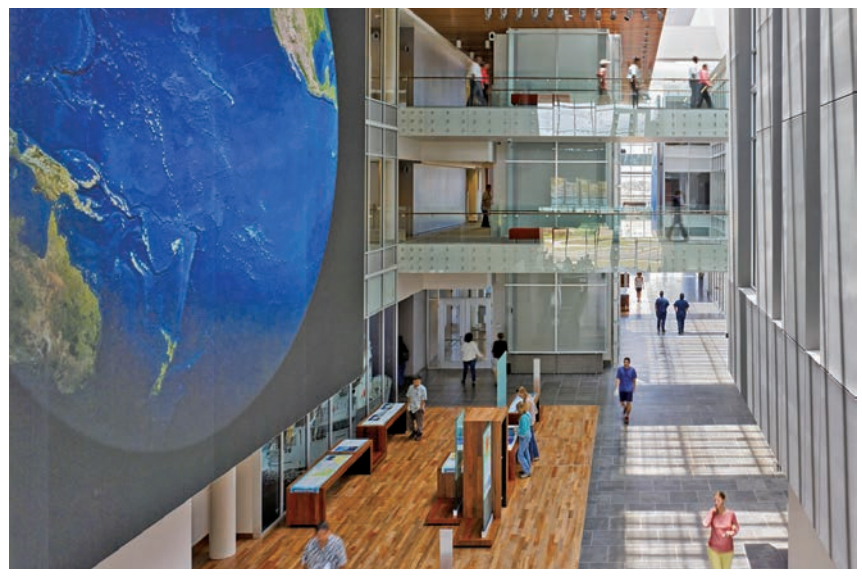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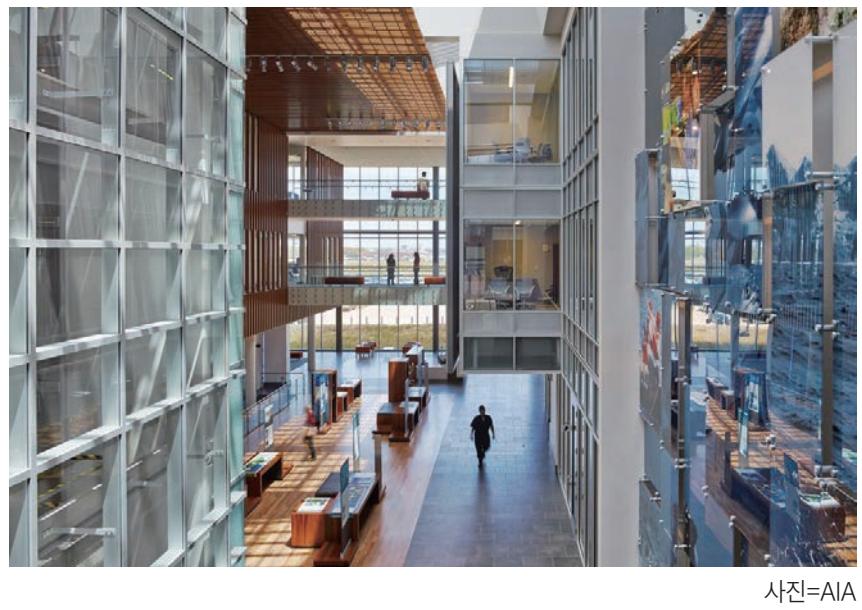
기존 격납고 였던 NOAA는 인공조명 없이 채광을 확보했다. 햇볕을 포착하고 반사하는 특수 제작된 조명 랜턴을 적용해 건물 안쪽까지 빛을 비추게 했다. 또한 바닥에 반투명 반사판을 설치해 햇빛을 분산시키고, 다시 천장으로 반사시켜 등기구로 활용했다.

기존 배수 시설의 문제도 보완했다. 빗물 대부분이 항구로 직접 유입되던 것을 막고 빗물 수집을 위한 바이오 필터를 설치했다. 빗물 보유 탱크로 이어지는 집수 장치를 지붕 전체에 설치해 빗물을 정화한 후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다.

NOAA는 부지와 기존 건물의 역사적 특징, 오아후라는 외딴 지역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건축을 진행했다. 주요 재료도 오히아 나무와 현무암 석재 등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를 사용했다. 또한 건설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재료의 재사용과 재활용, 공급업체 회수 등을 통해 폐기물을 95%까지 줄였다.

건축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AIA가 제안하는 열 가지 프레임은 큰 틀에서 사람을 위한 디자인, 자연 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디자인을 아우르고 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편인 '발견을 위한 디자인'을 다룬다.

조아라 기자

사진=AIA

# 제13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 제품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추천해 회원 및 일반에게 건축자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축자재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올해 건축자재 추천서를 교부 받은 30개 품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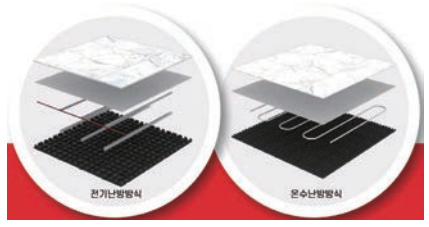
### ① 퀵스텝 하이브리드/ (주)신명마루

신명마루의 친환경 마루바닥재 퀵스텝 하이브리드(QUICK-STEP HYBRID)는 100% 방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표면강도의 우수성, 내화성, 설치의 편리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허받은 유니클릭 시스템을 적용, 마루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시공 후 수축·팽창으로 인한 문제점이 거의 없다. EU 에코라벨, 노르딕 에코라벨, LEED Point 등 친환경 인증 역시 다수 보유한 마루이다.

quick-step.co.kr
문의 02-537-6875

**(주)신명마루**는 바닥재 유통·시공 전문 기업으로 27년간 오직 바닥재 한 품목만 매진하고 있다. 바닥재가 쾌적한 공간을 완성하는 요소라는 믿음으로 품질 좋은 브랜드를 발굴하고, 자체 브랜드 '마루'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취향에 맞춘 바닥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② 무전자파 바닥난방 시스템/ (주)한진테크




한진테크의 무전자파 바닥난방 시스템은 평판형 밀폐 이중관 온돌로 신제품(NEP)인증을 받은 우수한 전기온돌 바닥난방 시스템이다. 내부 열선구조방식(특허)으로 열효율이 뛰어나고, 열전달 속도가 물보다 2배 이상 빠르며, 이중관 적용으로 부식과 누전이 발생될 우려가 없다. 건물 수명과 같은 내구연한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많은 유수 대학 기숙사에 납품되고 있다.

electo282.com 문의 031-366-2325

**(주)한진테크**는 난방산업의 선두기업이자, 우리나라 전통 온돌을 첨단 방식으로 디지털화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다양한 건축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건축사협회 추천건축자재, 국가기술표준원 신제품(NEP),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일본, 몽골,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 ③ 호야온돌/ 호야홈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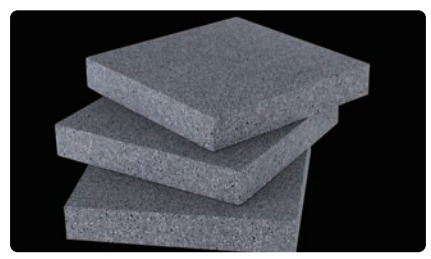
호야홈텍의 호야온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탄소복합소재를 원재료로 사용해 기존 건식난방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 조립식 패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시멘트 바닥에 비해 열전도성과 축열성이 높아 난방비의 2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고, 시공이 간단해 인건비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도 커 기능공이 부족한 습식 바닥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온돌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hoyaondol.com
문의 010-8760-2491

**호야홈텍(주)**은 2020년에 설립해, 군산국가산업단지 압출공장과 사출공장에서 전자동으로 호야온돌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70여 개의 대리점,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총판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규모 수량의 경우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해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 ④ 준불연단열재 안티화이어보드/ (주)비온텍



비온텍의 안티화이어보드는 심재형 준불연단열재(EPS)로 특허기술을 적용해 별도의 표면코팅 없이 심재만으로 준불연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비드업 단열재가 갖는 시공성과 현장 가공성, 경제성까지 갖췄다. 마감재 종류별 KS F 8414 실물화재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있어 습식마감재, 강판, 벽돌 등 모든 종류의 외단열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

bondwall.com 문의 1800-8488

**(주)비온텍**은 화재안전신기술/신소재 전문기업으로서 심재형 준불연단열재(EPS), 불연마감자재 등 실대형 화재 시험에 사용 가능한 화재안전제품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 ⑤ 이중유리 단열폴딩도어/ 대한폴딩

대한폴딩의 이중유리 단열폴딩도어는 특허 받은 기술력을 통해 지주가 없이 결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간확장과 조망권 확보가 용이하다. 힌지를 이루는 기어를 이중으로 구성해 내구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장을 최소화해 A/S발생도 타제품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였다. 단열재인 폴리아미드의 간격이 넓고 도어가스켓의 모양을 삼각에서 태극모양으로 개선해 공기층이 나뉘게 하여 타 제품보다 단열도 우수하다.

대한폴딩.com 문의 1544-0494

**대한폴딩**은 폴딩도어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단열이 우수한 중문, 원슬라이딩 댐퍼 도어 등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도어에 설치되는 안전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 상표권 등록 등 제품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결과 도어부문 통기량 0.69 기밀성 1등급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 ⑥ 냉간성형강구조(CFS) 자동화 패널라이징 시스템/ (주)스틸라이트

스틸라이트의 냉간성형강구조(CFS) 자동화 패널라이징 시스템은 CNC 드로잉 후 자동 생산되는 90mm, 140mm, 180~300mm의 스터드 및 장선부재를 패널 형태로 조립해 현장 반입 후 벽체 인양과 단순 세우기 등의 조립(ASSEMBLY)방식을 거쳐 시공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신속하게 균질한 품질의 구조체를 구현하고 있으며, 인력난 등 현대 건축산업 환경이 직면한 여러 난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steelite.co.kr 문의 031-353-1910

**(주)스틸라이트**는 OSC(Off-Site-Construction, 탈현장 시공) 방식의 건축공법을 지향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스틸하우스 구조라고 불리는 냉간성형강구조 자동화 패널라이징 시스템을 운용해 공장제 생산방식에 의한 프리패브 건축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성형기를 도입, 정밀하고도 견고한 경량철골구조 물용 부재인 Stud, Track, Joist 등을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 ⑦ 프레임리스 유리 난간/ 윈도어(주)

윈도어의 프레임리스 유리 난간은

# 건축연구원 연구과제 착수보고회…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신입회원 실무 운영가이드 마련

## 올 연말께 성과 도출, 건축사보 확보 방안 연구 포함 3건 동시 진행

6월 12일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축연구원 연구과제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건축연구원이 올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을 위한 '건축사사무소 운영가이드'를 마련한다.

또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관련 연구'와,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사보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도 추진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6월 12일 서울 서초동 소재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이상의 3건에 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에는 이정희 건축연구원장, 방재원 건축연구원 운영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건축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해체공사 계약 후 해체계획서 작성, 감리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건축물의 신축과정처럼 해체계획서가 작성되고 해체심의 및 허가가 완료된 후 해체공사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조용역에 대한 과다비용 지출, 공기지연 등 국민경제 손실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다. 현재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상 과도한 구조관련 내용으로 인해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구조해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건축사와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협력범위 구분이 모호한 해체계획서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이 기회에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건축연구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사보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건축학 인증대학과 실무수련제도 도입으로 비인증대학 졸업 건축사보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면서 건축사보 양성 및 확보가 업계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건축연구원은 연말까지 인력수급 현황, 법제도 현황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해 건축사보 인력수급 문제점을 종합해, 과제별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역할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운영에 따른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신진건축사(신입회원)를 위한 건축사사무소 운영 가이드 마련 연구도 진행된다.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데 있어 건축사의 권리와 책임, 건축 프로젝트 대가, 분쟁, 회계 및 재무, 설계감리 업무 외 건축사 업무 등 신진건축사에게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연구는 이 같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재원 건축연구원 운영위원장은 "회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 도출이 이뤄진 만큼 연구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 자문해 연구성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관희 기자

흙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 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 <특허공법-흙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 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최고 개방감을 선사하는 순수 유리 난간이다. 유리를 모듈화하고 이를 표준화시켜 가격 상승 이슈를 예방하고 있으며, 유리하우징을 사용해 깔끔한 시인성을 갖고 있다. 유럽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인 지상 30미터 기준, 풍속 30m/sec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됐으며, 이는 성인 남성 3명이 밀었을 때 견디는 값에 해당한다. 선제적인 안전조치에 힘입어 2023년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자재로 선정됐다.

win-door.co.kr
문의 010-2394-3381

**윈도어(주)**는 시스템도어 전문 업체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원하는 커튼월 테크니션 기업이다. 현재 창호와 건축 관련한 10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총 1,137개의 세부 항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술력에 더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연구·개발에 나서며 효과적인 아웃풋(output)을 창출하고 있다.

### ⑧ 구조용 방수 후레싱/ 다승

다승의 구조용 방수 후레싱은 창틀 테두리에 알루미늄 후레싱으로 차수 벽체를 구성하고, 주변을 실란트 작업해 물을 밀어내는 완벽한 누수차단을 한다. 수용성 실리콘은 소량의 먼지가 있어도 벽체가 젖거나 기공으로 투습돼 뿌리가 박혀 박리가 되지 않는다. 다승의 후레싱과 수용성 실란트는 누수에 취약한 벽돌건물에서도 완벽 방수, 누수차단이 가능하다.

win-door.co.kr
문의 010-2394-3381

**다승**은 건물의 방수와 차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일반가격으로 최상위 고급건물의 방수·차수 기능을 구현하는 기업이다. 건축물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용 방수 후레싱을 개발, 2년 동안 2,300여 곳에 공급하고 있다.

### ⑨ 나노액티브/ 이에이 바이오스(주)

이에이 바이오스의 친환경 고성능 페인트인 나노액티브는 외벽용 제품으로, 차열, 방수, 중성화 방지, 초내후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나노세라믹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능성 페인트로, 주거공간, 공공기관, 경관 개선,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eabios.com 문의 051-463-0231

### ⑩ 바이탈/ 이에이 바이오스(주)

이에이 바이오스의 실내용 친환경 고기능성 도료인 바이탈은 항균성능, 항곰팡이 성능, 낙서방지 성능, 친환경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유무기 복합 배합으로 마이셀 형상의 입자와 특수기공배열의 특허를 받았으며, 독창적인 구조로 차별화된 기능성을 복합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주거공간, 공공기관, 경관개선,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eabios.com 문의 051-463-0231

**이에이 바이오스(주)**는 2005년 설립돼 친환경 나노세라믹 소재를 기반으로 건축, 토목,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친환경 도료 제조기업이다. 2016년 유럽 특수도료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도료를 연구, 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다.

### ⑪ 엑실드(심재준불연 경질우레탄보드)/ 코스모폴(주)

코스모폴의 심재준불연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인 엑실드(Exield)는 오랜 시간 검증된 건축용 단열재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의 친환경, 고성능에 더해 준불연 성능을 구현한 제품이다.

우레탄폼 단열제의 최대 난제였던 유독가스가 면재와 맞닿은 표면층에서 발생한다는 메커니즘을 밝혀 표면층을 제거하고, 면재 없이 심재만으로 공급되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고성능의 심재준불연 경질우레탄폼 단열재다.

cosmopol.co.kr 문의 041-534-3101

**코스모폴(주)**은 2019년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1면 준불연 제품에 이어 2022년 국내 최초로 심재준불연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의 개발에 성공한 심재준불연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전문 제조업체다.

### ⑫ 이녹스틸/ (주)디에스피

디에스피의 이녹스틸은 디에스피만의 혁신적인 'Coil to Coil 스테인리스 스틸 코팅' 기술과 접합기술을 통해 태어난 컬러 스테인리스 스틸 접합 소재다. 미려한 외관, 경쟁력 있는 가격, 쉬운 가공성을 확보하고,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해외를 비롯해 국내 건축시장에서도 각광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운상가, 대구은행 등에서 활용됐으며,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일본 혼마치 역사 등에서도 사용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colorstainless.com
문의 010-3280-7015

**(주)디에스피**는 1996년 설립된 스테인레스 스틸 코팅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스테인레스 스틸을 코일 형태로 코팅할 수 있는 Roll to Roll PVD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국내 컬러 스테인레스 스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과 다른 소재를 접합하는 접합기술도 개발해 건축 내외장재, 자동차 소재, 일반 소비재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생산하고 있다.

### ⑬ 스피드블록메탈패널/ (주)광스틸

광스틸의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화재확산 방지가 가능하다. 패널 4면에 각각 내장형 가스켓을 사용해 누수문제도 해결했으며, 각각의 패널이 조립되어지는 구조로 시공이 간단하고, 유지보수 시 패널 손상 없이 탈부착만으로 가능하다. 탈착식 공법 적용으로 인건비, 사후관리비, 장비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theksteel.com 문의 010-2405-7144

**(주)광스틸**은 2000년 5월 설립되어 꾸준한 연구개발과 기술투자로 외장건축자재 전반에 걸쳐 기술력 우위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건축사와 건축주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⑭ KSCP/ KSC산업(주)

KSC산업의 KSCP (Kwang-steel Steel Clip gypsum board Partition)는 수형 탄성클립 위에 암형클립을 덮는 형태로 고정하는 결합시스템이다. 패널 간 고정 시 발생하는 이음부 메지가 발생하지 않는 칸막이다.

theksteel.com 문의 043-261-8360

### ⑮ 내화SGP-100/ KSC산업(주)

KSC산업의 내화SGP-100은 강판에 압축차열 시트와 방화석고보드를 부착해 내화성능을 강화시킨 SGP이다. 스터드 및 석고보드를 기본구조로 한 내화경량칸막이다.

theksteel.com 문의 043-261-8360

**KSC산업(주)**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함에 있어 한 발 앞서, 준비된 자세로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로 보답하고자 하는 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 제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박관희 기자

# 불법증축 막겠다고 추진하던 '농막 규제' 철회…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과잉규제 논란 확산에 부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새 개정안 마련 예정**

불법증축한 농막 사례
자료=감사원 감사보고서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농막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법령 개선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장과 전문가들이 과잉규제라고 지적에 나섰고, 대통령마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자 농막제도 개선을 추진하던 행정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제도와 관련해 진행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막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황근 장관의 지시로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예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주택법, 건축법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주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업무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입법예고 후에도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안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거듭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정이 중단됨에 따라 향후 개정안 역시 원점부터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농막 설치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관희 기자

# 생활 속 건축교육 '조아저씨 건축창의체험', 인천 부원중학교 학생들과 진행

**조원용 건축사 "건축교육으로 문화의식 함양, 함께 만드는 체험 통해 협동심·사회성 기를 수 있어"**

**미래의 건축주로서 올바른 건축 소양 함양, 건축사에 대한 이해 도와**

조원용 건축사가 진행하는 '조아저씨 건축창의체험'

지난 6월 8일 조원용 건축사가 진행하는 '조아저씨 건축창의체험'이 인천 부원중학교 2학년 268명과 함께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이뤄졌다.

건축창의체험은 조원용 건축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건축교육 프로그램으로, 놀이로서 건축을 경험케 하며 미래의 건축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전하는 데 교육의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기간 중 ▲건축 강연 ▲아키조블록으로 살고 싶은 집 만들기(건축) ▲팀별로 마을 만들기(도시계획) ▲한정된 재화로 목적공간 만들기 ▲지오데식돔 만들기 ▲절판구조 체험 ▲다빈치다리 만들기 등 건축을 체험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조원용 건축사는 "어려서부터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 생활 속에서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면 자신이 생활하고 체험하는 일상의 장소와 공간, 역사, 문화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며 "미래의 건축주로서 건축에 대한 올바른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정성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박선희 건축사(대전광역시건축사회)

# 박선희 건축사 "건축사끼리 소통하고 협회에 참여해 모두의 협회 만들어가길"

박선희 건축사(우반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박선희 건축사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건축은 근사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조직하는 일이다.' 이 말은 정기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일종의 가르침과 같은 말인데요. 다시 곱씹을수록 '그저 좋다'는 이유로 선택하게 된 건축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삶을 섬세히 조직하는 것을 건축사의 사명이라 마음에 새기며 노력하는 건축사가 되려고 합니다."

박선희 건축사(우반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만큼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게 없다고 말한다. 생활과 밀접한 접점을 찾아 사용자의 불편을 더는 것이 건축이고, 건축사의 역할이라 믿으며 나아가는 박선희 건축사. 무엇이 그를 내면이 단단한 건축사로 발돋움하게 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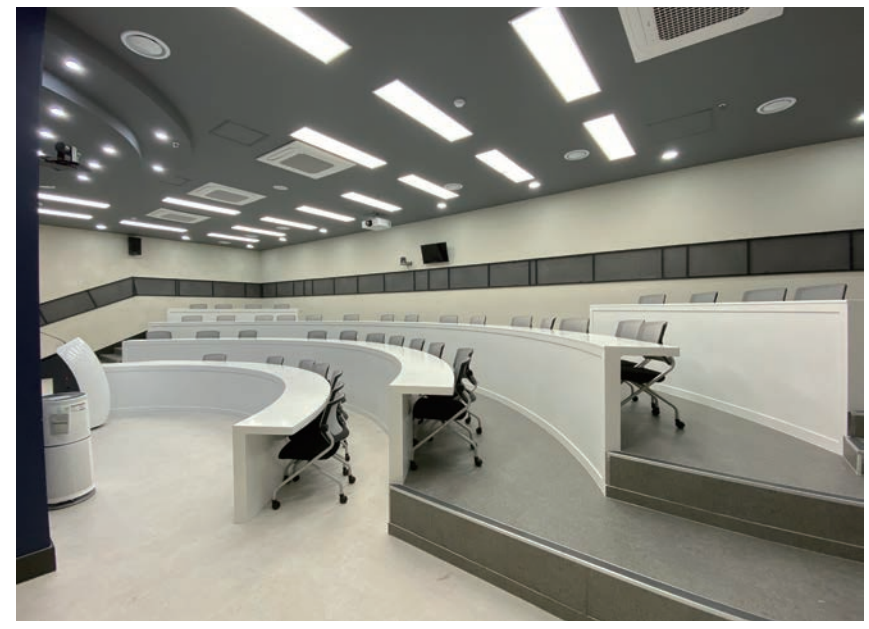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도면을 그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막연히 건축사라는 직업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정작 건축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조금 더 이후입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 3년여를 공부한 뒤에 건축공학과로 전과를 선택했거든요. 다소 늦은 졸업, 실무 수련과 건축사자격시험 준비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했을 때는 뒤늦게 꿈을 되찾아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의무 가입이 올해를 기해 완성되는데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정기용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선생님께서 "건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목욕탕이 필요한 곳에 목욕탕을 지어주는 일"이라고 대답했던 게 생각납니다. 당시에 정기용 선생님의 무주 프로젝트를 탐독하던 중이었거든요. 무주 프로젝트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10년간 30여 개의 공공 건축물을 짓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공공 건축물 중에서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목욕탕입니다. 면사무소 대신 목욕탕이 설계된 이유를 알고 나니 건축과 건축사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죠.

지금도 그때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접점을 찾아 사용자의 불편을 더는 것이 건축이고, 건축사의 역할이라고요. 건축사로서 만들어 가고 싶은 건축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공간을 실현해, 사용자의 꿈을 이루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건축사로서의 이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 협회에서 추진 중인 건축사 민간대가 기준 규정의 법제화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만 같던 의무가입을 이뤄낸 것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협회와 건축사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희 건축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생활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사업으로 설계된 허브형 디지털 학습실의 모습이다. 사진=박선희 건축사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건축물은 다른 생산물보다 공공성이 크고, 한 번 건축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상시 사용하고 거주하는 만큼 사전에 점검하고 반영해야 할 것도 많고요. 하지만 현황과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소수의 심의위원의 의견이 건축 계획, 설계, 공사 범위 등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의가 법의 보완적 역할을 하되,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등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소 개소 후 학교 시설 설계를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학교를 현장 방문해보면 사회 변화에 비해 20~30년 전 모습 그대로여서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간혁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등을 마친 학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학교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공간과 환경이 미치는 기능과 영향을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건축사가 되려고 합니다. 배웠던 것을 적용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설계에 매진하려 합니다.

의무가입이 완성되는 만큼 건축사들끼리 소통하고 협회에 참여해 모두의 협회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조아라 기자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대행기관<국토교통부 지정>

▶ 협회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탭 참조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 이수시기 | 이수시간 |
|---|---|---|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기본교육 : 35시간 |
| ※ 건설기술 업무 :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 |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 이수시기 | 이수시간 |
|---|---|---|
|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최초로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전문교육 : 35시간 |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전문교육<br>- 중 · 초급 : 70시간<br>- 특 · 고급 : 105시간 |
| 품질관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전문교육 : 35시간 |

□ 승급교육(전문교육)

| 직무구분 |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 이수시간 |
|---|---|---|
| 설계·시공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건설사업관리 |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 중급·고급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품질관리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계속교육(전문교육)

▶ 각 직무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

| 직무구분 | | 이수대상 | 이수시간 |
|---|---|---|---|
| 설계·시공 | | 특급 건설기술인 / ① 현장배치기술인 / ②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
| 건설사업관리 | 일반 계속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 안전관리 계속교육 |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 품질관리 |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02-3415-6842~8), 시·도건축사회

인터뷰 '유럽여행 나의 어반스케치' 출판 **이현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두이건축)

# '건축의 감성' 작은 화폭에 채워 첫 책 펴낸 이현철 건축사…"'중꺾마'로 배움과 도전에 대한 열정 이어갈 것"

**'유럽여행 나의 어반스케치' 첫 책 내고 출판기념회 열어**

**여유 갖고 준비해 앞으로 더 숙련된, 질 높은 작품 선보이고 싶어**

**그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재능기부 '교육'도 병행**

**뇌졸중으로 왼손으로만 그림, '배움과 도전' 의지로**

**좋아하는 '그림 작업' 이어나갈 계획**

"14년 전부터 여행을 다니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출간한 책은 그간 여행을 다니며 좋아하는 건축물과 건축이 있는 풍경을 펜 드로잉 작품으로 옮겨 담은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다 보면 여행의 의미도 새록새록 느끼게 되죠. (웃음)"

도심 속 풍경을 빠르게 스케치하는 어반스케치 작품을 묶어 최근 책을 출간한 이현철 건축사는 '유럽여행 나의 어반 스케치'를 펴낸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이 건축사는 지난 6월 출간된 '유럽여행 나의 어반스케치(유럽여행 그리고 어반스케치 핸드북)'를 통해 유럽여행을 하며 스스로 느낀 유럽의 건축과 그 감성을 스케치로 풀어냈다. 이번 출간 책이 "인생 첫 책"이라고 밝힌 이 건축사는 "본인만의 시각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시간, 건축 인생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시간이 됐다"며 뿌듯해 했다.

이현철 건축사가 출판기념회에서 저서에 서명을 해주고 있다.

이현철 건축사가 지난 6월 3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어반 스케치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일상·여행지 등 어느 장소에서나 현장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즉석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회화 활동 중 하나로, 산어귀·골목 어느 곳에서나 그릴 수 있고, 연필·붓·펜·목탄 등 어느 도구를 써도 되는 등 형식의 제한 역시 없다. 어반 스케치가 본격화된 건 2010년 전후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스페인 출신의 가브리엘 캄파나리오 기자가 2007년 이미지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FLICKR)에서 어반 스케쳐스 운동을 시작했다.

책의 모든 그림을 직접 그렸지만, 정작 이 건축사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관련 서적을 구입해 드로잉 연습을 했다"며 "짧은 시간 나만의 그림을 완성하며, 컬러링 자체가 주는 안정감에 매료됐다"고 설명한다.

ROTC 전역 후 건축 설계를 시작해 건축사사무소에서 꼬박 5년을 채우고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이 건축사는 고향인 대전에 내려와 꿈이었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다. 한동안 바쁜 나날을 보내다 사무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비로소 여유를 찾았고 자신이 학창 시절부터 평소 좋아하던 "축구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림을 시작한 지 14년간 몰두한 그림은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주변에서도 책을 한 번 내보자는 제안이 들어와 출간 계획을 세웠다.

이 건축사는 "여행을 갈 때마다 펜 드로잉 작품으로 옮겨 담아 당시의 느낌을 담아 꼬박꼬박 그림을 그려나갔다"며 "어반스케치의 경우 현장에서 그리는 만큼 거칠어도 더 생생하고, 당시의 마음이 온전히 묻어 들어간다"고 전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 그리기' 동아리수업도 성심을 다해 지속하고 있다'는 그는 앞으로도 배움과 도전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그는 뇌졸중으로 마비가 와 80% 회복된 왼손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오른손으로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 상태가 100%가 될 때까지 다방면으로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여행 중 이현철 건축사가 작은 화폭에 담은 '스페인 교회 모습'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건축사 개인으로서 그간 그림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니 활동을 쭉 이어나가 여유를 갖고 준비해 더 숙련되고 질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장영호 기자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핵심 제도 중심으로 삽화 안내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 수록**

**비계·지붕 사고 예방 위해, 상세 사고사례 함께 안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이 배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했다. 삽화를 활용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인 비계와 지붕 사고 예방을 위해, 상세 사고사례를 함께 안내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5건 중 1건은 임시 구조물이나 지붕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의 비계와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숨진 노동자는 각각 152명과 125명으로, 두 사례를 합하면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라 기자

# 평택 지제역 역세권·진주문산 콤팩트시티 조성…공공택지·공공주택·교통여건 개선

**평택 지제역 역세권, 공공택지 3만 3천호 뉴:홈 2만호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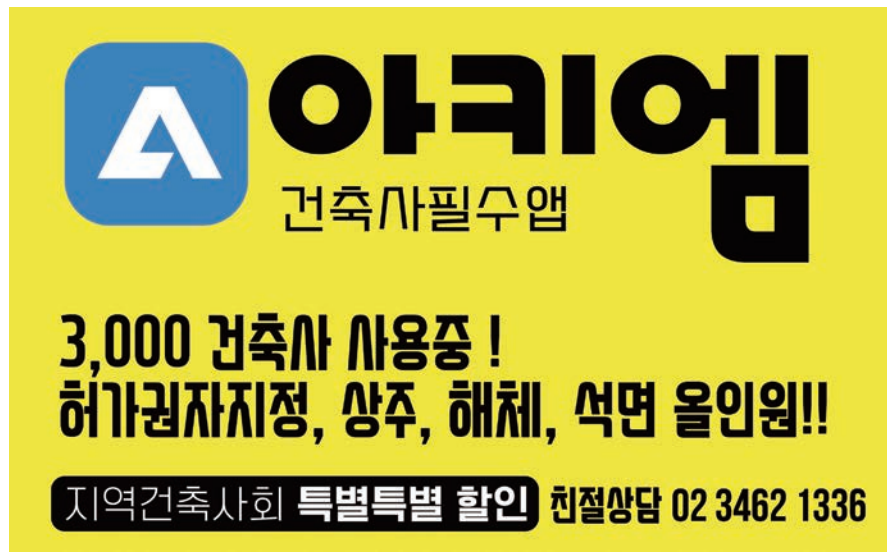
평택 지제역 역세권과 진주문산이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콤팩트시티는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두 곳은 산업단지와 접근성이 높고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이다.

반도체 첨단 산단과 가까운 평택 지제역 역세권에는 공공택지 3만 3천호와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도 2만호 내외가 공급된다. 지역 교통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평택 지재역 GTX A와 C를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진주문산, 진주역-터미널-도심 간 순환교통망도 정비**

국토부는 평택 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첨단 산단의 배후 주거 역할을 하며, 정주환경과 광역교통을 제공하는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트인 진주문산에도 공공택지 6천호 공급이 계획 중이다. 또한, 진주역-터미널-도심 간 순환교통망도 정비된다. 이곳도 첨단 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과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IC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등이 배치된다. 조아라 기자



인터뷰 **구국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마루)

# 2021년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 구국현 건축사 "건축사로서의 생각과 의지를 나타낸 작품…매 순간마다 배울 점 많았다"

"작품에 대한 주변 평가·수상 가능성 등을 따지기보다 우선 도전해 보길"

충남 아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창고 사진=나르실리온 포토그래피

구국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마루)

친숙하지만 새롭고, 익숙하지만 독창적인 설계로 구국현 건축사는 2021년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충남 아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창고')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PVC라는 재료를 색다르게 해석하며 건축물의 실용성과 미적 설득력을 갖추며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월간 건축사에서도 표제작으로 다루며 작품을 소개한 바 있다. 아카시아 건축상 일정이 도래한 6월, 본지가 그를 만나 지난 수상의 소회와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대해 물었다.

**Q. 2021년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건축상 산업시설 부문에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출품동기와 수상소감이 궁금합니다.**

당시 출품작인 '건축, PVC 파이프를 입다'는 충청남도 아산시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폐 PVC 파이프를 업사이클링해 자연채광과 통풍의 효과를 높인 작품이죠. PVC 파이프의 재사용으로 기존 창고와는 전혀 색다른 파사드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디자인 요소뿐 아니라 농기계 보관을 위한 냉난방 시설이 불필요하고 자연환기도 가능해 기능적인 면에서도 건축물의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물론 계획부터 시공까지 순조롭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건축사로서의 저의 생각과 의지를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에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용도의 산업시설 건축물이지만 국제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출품 조건에 맞춰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건축상에 출품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Q.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거나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소재가 있다면.**

설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특정한 소재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부지의 위치, 주변 상황, 책정된 공사 대금 등에 따라 적절한 소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리사이클 재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둥보수 후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가공 후 버려지는 돌과 목재와 같은 재료를 어떻게 하면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아카시아 건축상에 도전하고자 하는 건축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작품에 대한 주변의 평가나 수상 가능성 등을 따지기 보다는 일단 도전해 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서 건축상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결과를 기다리는 매 순간마다 건축사로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금년도에 다시 한 번 건축상에 도전합니다. 작품을 수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어떤 프로젝트보다 보람찼던 만큼 아카시아 건축상을 통해 평가를 받아보려 합니다.

**Q. 건축사님이 건축설계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적 철학이나 가치관은 무엇인지요. 향후 작품 활동 계획에 대해 밝히신다면.**

'스스로를 비겁하게 만들지 말고, 사람과 도시를 배려한 건축을 하고, 살면서 즐거우면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도 잊지 않고 상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소신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제가 올바르다 믿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조아라 기자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①돌출 폭 2.5미터 이상 ②난간 유효높이 1.5m

③둘레 길이 50% 이상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 갖춰야

개정 기준 즉시 적용, 이미 허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으로 적용 가능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돼 시민들이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를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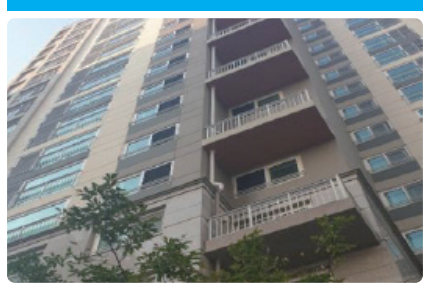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코니의 개방성 유지와 실내 공간화 방지, 대피공간 설치 대신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에 이루어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영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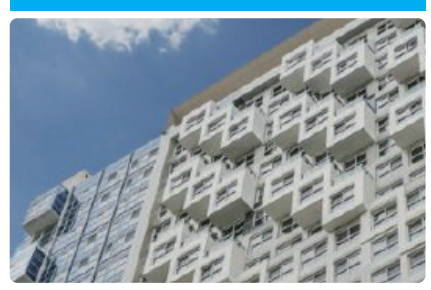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상 발코니 기준>

개방형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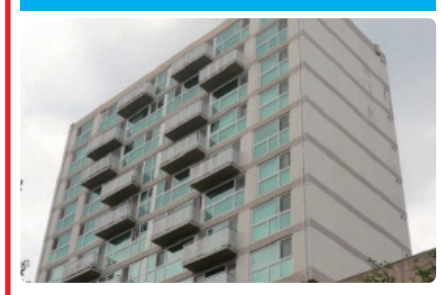
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1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수직으로 연속하여 3세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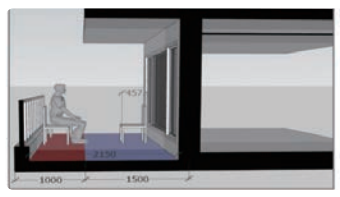
돌출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

<(추가)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규모 및 형태>

○ 규모 – (폭) 현행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유효 폭(1.5m), 구조 등을 고려하여 **돌출 폭은 2.5m 이상**(6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적용



2.5m 개방형 발코니의 단면도 (6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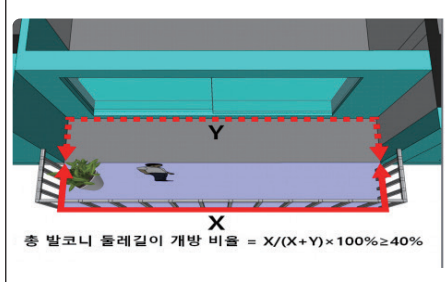
2.5m 개방형 발코니의 조감도

비확장 발코니를 연계한 개방형 발코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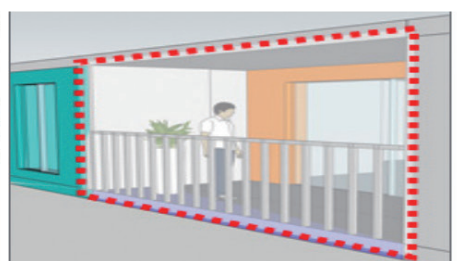
(발코니 유형) 돌출개방형 발코니로서 직상에 폭 1m 이내까지 슬래브 인정

자료=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Aauri brief 건축공간연구원, 2021.01.30

○ 형태 – 발코니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난간 외에 벽 또는 창호 등으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설치




개방형 발코니 개방률 산정(일부 함입 가능)



전부 함입된 발코니 형태 방지

코너 발코니 적용 가능

⇒ 총 발코니 둘레길이 개방 비율 = X ÷ (X+Y) × 100% ≥ 50% (X : 외부에 면하는 길이, Y : 내부에 면하는 길이)

자료=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Aauri brief 건축공간연구원, 2021.01.30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23 추대회원 초청행사 가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문화체육위원회는 지난 5월 건축문화 및 서울시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힘쓴 원로 회원에 대한 감사와 예우차원에서 추대회원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5월 4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추대회원 43명과 김재록 서울시건축사회장 등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9시 서울시건축사회를 출발한 참가자들은 포천 아트밸리, 전통주 박물관 산사원을 방문했다.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진구건축사협의회 '사랑의 품앗이 사업' 준공식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소속 부산진구건축사협의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주관하며 이웃나눔을 실천했다. 부산진구건축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품앗이' 사업은 6.25전쟁 참전 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협의회는 공사비 약 1,600만 원을 들여 바닥장판지와 벽지, 천장지, 주방 및 거실, 창문 등에 대한 교체를 진행하고 밥솥, 휴지, 세제 등 소소한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 영남권건축사회, '제2회 건설안전협의체 간담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영남권건축사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가 4월 27일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와 건설안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 수립,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5월 10일에는 '안전점검위원 위촉식'을 갖고, 부산·대구 일대 안전점검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건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카카오 채널 개설, 건축문화제 행사에 국토안전관리원 홍보 부스 설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2023 회장기 대구·경북 건축학과 대학생 축구대회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6일 대구시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2023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기 대구·경북 건축

(공)학과 대학생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구·경북지역 7개 학교 130여 명이 참가했으며, 2개조로 나뉘어 리그경기를 치룬 결과 영남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가 결승전에 올라 치열한 승부 끝에 금오공과대학교가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석한수 대구시건축사회장은 "앞으로도 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건축계 선·후배 간의 소통,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사진동호회, '장수사진' 촬영 봉사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사진동호회는 5월 20일 인천 중구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인근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최복규 사진동호회장은 "장수사진 봉사활동은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뜻깊고 보람된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을 확대해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시건축사회 회원들의 성원으로 액자 제작비용을 충당하는 등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시·구청 도시건축팀장과 간담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7일 대전시건축사회 본회의실에서 대전시·구청 건축팀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박태식 대전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시·구청 건축팀(과)장 5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체감리 완료 후 감리비용 확보에 대한 대책 ▲건축분야 주요 현안 ▲대전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3년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5월 16일 무안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정인채 광주시건축사회장, 주정호 골프동호회장을 비롯한 동호회원과 초청인사 등 8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총 22개팀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안천수 회원이 73타를 기록해 메달리스트에 선정됐으며, 김권수 회원(69타)이 우승해 그린재킷을 입었다. 다버디상은 이기수, 조윤철 회원이 각각 4개로 공동수상했으며, 니어리스트 부분에서는 양동현 회원(0.9m), 롱게스트 부문에서는 강형선 회원(270m)이 수상했다.

##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세종시민 건축아카데미 건축설계분야 인재양성과정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사)세종여성과 공동 주최·주관으로 6월 9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3 세종시민 건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3개월여의 직무 과정을 연다. 김승태 세종시건축사회장은 "지역의 여러 기관이 협력해 성사된 이번 과정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세종시건축사회는 인력,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개인별 멘토링 진행으로 과정 수강생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

사진=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는 6월 14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경기도 장애인 복지증진,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과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등편의법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 공유 및 편의시설 설계기준 도서발간 ▲건축사 실무교육 및 상담소통 창구 마련 ▲건축사의 장애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계협력 ▲장애인 건축사사무소 취업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 2023년 건축세미나 개최

사진=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는 6월 15일 경기도건축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축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근 여행에서의 공간 트렌드로 자리잡은 '스테이(stay)'를 테마로 선정, 건축사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공간기획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건축사들이 급변하는 건축 트렌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충청북도건축사회, 2023년도 임원워크숍 개최

충청북도건축사회는 6월 6일 단양일원에서 2023년도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 충청남도건축사회, 명품 홍예공원 조성 위한 수목기증식 참석

충청남도건축사회는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을 세계인이 찾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함에 따라 농협, KB국민은행 등 13개 기관과 함께 6월 1일 수목 기증식을 함께 하는 등 적극 참여했다. 도민 참여 숲은 개인과 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헌수금을 받아 느티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목련,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1,000그루를 홍예공원 곳곳에 식재한다는 계획이다.

## 충청남도건축사회, 체코·독일 해외테마 건축기행

충청남도건축사회는 2023 해외테마 건축기행 5차 기행지로 체코와 독일을 선정,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해외테마 건축기행을 진행했다. 회원 및 가족 1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건축기행에서는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 중세 도시의 건축문화를 간직한 체스키크롬로프, 독일의 베를링 성당, 브란덴브르크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파크 등 체코와 독일의 우수 건축물과 문화를 체험하고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상남도건축사회, 2023 회장배 골프대회 진행

경상남도건축사회가 5월 29일 의령리온CC에서 2023년 경남건축사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170명의 건축사와 10여 명의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오공환 경남건축사회장은 "경남 건축사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준비한 골프대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의 참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 덕분으로,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일상에서도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건축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건축사회, 2023년 경남건축사대회 진행

경상남도건축사회는 6월 24일 의령 의병문화체육관에서 회원 및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형태로, '2023년 경남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석정훈 본협회장, 조해진 국회의원, 진병영 함양군수, 하종덕 의령 부군수를 비롯한 내외빈과 회원과 가족 5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경남건축사회 회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통해 건축사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허정도 건축사(전 LH상임감사위원, 전 경상남도 총괄건축가), 진병영 건축사(현 함양군수), 석희억 건축사(현 밀양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도 함께 이루어졌다. 오공환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남 건축사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개최 목적을 밝혔다.

## 청주지역건축사회, 집수리 봉사활동

충청북도건축사회 청주지역건축사회는 6월 24일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청주시에서 선정한 가구를 청주지역건축사회 봉사단이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 순천지역건축사회, 체육행사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 순천지역건축사회가 5월 26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건축사 회원과 직원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적용처 주방/화장실/사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환경부 환경 마크 획득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우수건축자재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 목조건축 산책

이동흡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 자연과 건축물의 연결 ③
# 교육·의료·사무실 환경에 바이오필릭 디자인 투자 효과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교육·의료·사무실 환경에 대한 현명한 투자

현재 세계 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하며 그들 시간의 93%를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1] 이 때문인지 바이오필리아는 오늘날 직장 꾸미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행어가 되었다. 최근 Google, Facebook 및 AirBnB와 같은 기업들은 협업과 휴식을 위해 사무실을 공간 위주로 만들고,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직장의 외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공간에 자연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여서 얻는 반사이익이 투자비용보다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 58%의 사무실에는 바이오필리아를 느낄 수 있는 식물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47%는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2]고 한다. 실내에 바이오필리아를 감지할 수 있는 식물이 있으면 긴장감과 불안감이 37% 감소하고 피로감도 줄어든다는 보고[3]가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책상이 창을 향하고 있는 직원들은 반대 방향에 있는 동료들보다 7% 더 빨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4]이 있다고 할 정도로 창문과 자연광은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인간의 에너지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조사 결과[4]도 있다. 자연 요소로 설계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15% 더 높았으며 창의력이 15%, 생산성이 6% 더 향상되었다.[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인지 능력이 26%, 병가 일수가 30%, 수면의 질이 6%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직원들은 귀가한 지 한참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이오필리아의 혜택을 느낄 정도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시간은 외부 시야가 확보된 환자의 경우 8% 이상 단축되었고[6] 진통제 사용도 22% 감소했다.[7] 또한 학생들의 학습 속도를 20~25%까지 증가시키고 있으며, 시험 점수가 5~14% 향상되었고[8]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가 일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9] 출석률과 집중력 수준이 향상되었다.[10] 또한 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은 통계적으로 범죄가 7~8%가 적었다. 영국의 H&M 헤머스미스는 소매업자의 경우 자신의 제품을 보완하기 위해 목재 인테리어와 식물을 가게로 들이면서 소비자의 발걸음 많아졌다는 보고도 있다.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혜택을 주고 있다. 목재는 자연에서 보이는 패턴과 모양을 갖추고 있는 자연과 살아있는 유기체를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바이오모픽 형태(Biomorphic Forms)[11]를 갖추고 있다. 그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목조건축 기술은 자연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공간에서 배우고 일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향상된 웰빙과 안락을 얻는 지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비록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구현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교육·의료·사무실 꾸미기에 자연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1) https://www.edntech.com/blogs/news/biophilic-design-what-it-is-and-why-it-matters
2) https://architecturenow.co.nz/articles/the-global-impact-of-biophilic-design-in-the-workplace/
3) Browning, W., Ryan, C. & Clancy, J. 14 Patterns of Biophilic Design: Improving Health & Well-being in the Built Environment. (2014).
4) The Cost of Workplace Stress in Australia. (Medibank Private, 2008).
5) Human Spaces Report (2015) The Global Impact of Biophilic Design in the Workplace P19-30
6) Ulrich, R. S.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224, 420-421 (1984).
7) Park, S. H., Mattson, R. H. & Kim, E. Pain tolerance effects of ornamental plants in a simulated hospital patient room. Acta Horticulturae 639, 241-247 (2004).
8)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students in day lit schools -Nicklas Bailey, 1996
9) Kuo, F. E., & Faber Taylor, A. (2004). A potential natural treatment for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evidence from a na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9), 1580-1586.
10) Wells, N. M. (2000). At home with nature: Effects of "greenness" on children's cognitive functioning. Environment and behavior, 32(6), 775-795.
11) Browning, W., Ryan, C. & Clancy, J. 14 Patterns of Biophilic Design: Improving Health & Well-being in the Built Environment. (2014).

##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시초 함양 남계서원(濫溪書院)

남계서원 풍영루

남계서원 전경

동방오현 중 한 사람인 문원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을 향사하는 함양 남계서원(咸陽 濫溪書院)은 조선시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사액서원(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린 서원)이다.

정여창은 1450년 경상남도 함양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욱(伯勗). 호는 일두(一蠹),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그의 성리학 이론은 정몽주 · 김숙자 ·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조선 전기 사림파의 주자학적 학문을 계승한 것이어서 1610년(광해군 2년) 문묘에 승무(陞廡)되었다. 정여창은 성리학의 대가로 경사에 통달하였고 실천을 위한 독서를 주로 하였다.

정여창의 학덕을 기리고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고을 유생 개암 강익(姜翼)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선비들의 공의로 1552년(명종 7년) 남계(藍溪)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1974년 2월 16일 경남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사적 제499호에 지정되어 있다.

### 서원의 역사

남계서원은 소수서원과 달리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서원 건축구조의 기틀을 세웠다. 1552년(명종 7년) 창건하여 1566년 '남계서원'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되었으나,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 그 후 1603년에 나촌으로 옮겨 복원하였다가 1612년(광해군 4년) 옛터인 현재의 위치에 중건하였다.

누각인 풍영루는 1847년 불에 탔다가 1849년 다시 중건하였으며, 고종 5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 훼철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로,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누각 정면에는 '풍영루(風咏樓)', 반대편에는 '준도문(遵道門)'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누각의 천정에는 도배하듯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장원급제를 상징하는 두 마리 '게' 그림이 인상적이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여창을 모신 서원은 전국적으로 9곳에 이르며, 그 중 주된 곳이 남계서원이다. 남계(濫溪)는 서원의 곁을 흐르는 시내의 이름이다.

남계서원은 구릉을 등진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서원 앞으로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계천이 흐르고, 그 앞 넓은 들판 너머로 안산인 백암산이 서원을 마주 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건물 배치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과 달리 남계서원은 서원의 제향 공간에 속하는 건물들은 서원 영역 뒤쪽에 자리 잡고, 강학 공간에 속하는 건물들은 서원 영역 앞쪽에 자리 잡은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초기 배치 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이다.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었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특출한 증거로 남았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이곳 함양 남계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대표서원 9곳을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여,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일원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 디자인의 과정이 건축이다

## 건축과 삶

**김홍근**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ADF건축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최근 이슈가 되고 또 전문 건축인들 조차 환호하는 건축을 보면, 건축이 우리 삶의 일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아직도 미술적 형태에 집착하는 오브제로서의 한계를 못 벗어난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어떻게 보면 이는 건축이 우리 삶의 행태나 일상의 니즈와 별개로 인식되고, 건축사 스스로도 건축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자신의 일상조차 얹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된다. 비전문적인 시각에서의 이상적 공간과는 다르게, 주변 공간에 대해 느끼는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니즈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사가 어떤 가정과 해법을 제시하느냐는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의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한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인간의 삶(거주)과 사용이 주목적이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존재 이유는 건축의 목적인 인간의 삶과 사용에 최적으로 대응되는데 있다. 건축이 인간의 거주와 사용에 최적화되어야 하기에 인간 삶의 온갖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과 밀접하게 결부되고, 건축 당시의 모든 기술적, 감성적, 이념적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의 열악한 상황에도 복합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축 프로세스의 그 과정이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 대립되고 모순된다 해도 통합, 조정되는 그 과정이 이미 건축적인 완성도를 담보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디올이 이화여대 ECC를 배경으로 대규모 패션쇼를 열고, 루이비통이 한강 잠수교 위에서 패션쇼를 했다. 서울이 패션 트랜드와 브랜드들의 가장 까다로운 시장으로 인식되고, 한류와 함께 세계시장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 서울이 이미 매력적인 공간·도시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명품 브랜드들이 신제품만 나오면 테스팅 보드로 한국을 제일 먼저 선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드높아진 한국인의 안목과 취향에 비하면 우리 건축과 도시의 현실은 찜찜하기 그지없다. 이미 만들어진 대부분의 현상(現狀)이 그렇고, 우리가 유지하려는 공공의 절차나 전문적인(?) 진행 과정이 그렇다.

그래서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과정 속에 '왜 짓는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건축은 분명 문화현상이고, 그 문화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소통 틀로 걸러지게 될 때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다. 이미 세계는 대부분의 물리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한 가까워졌기에 공유되는 사고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다. 그럴수록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과 역사적인 고유성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에 기반을 둔 조건과 요구들이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작동될 때 비로소 명품 건축, 명품 도시로 불리게 될 것이다.

## 시로 보는 세상

### 코스모스

- 김사인

누구도 핍박해본 적 없는 자의
빈 호주머니여

언제나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
그간의 일들을
울며 아버님께 여쭐 것인가

- 김사인 시집
'가만히 좋아하는' 중에서/
창비/ 2006년

이 시에는 두 가지 차원 이동이 일어난다. 하나는 코스모스다. 코스모스를 매개로 펼쳐질 이 시는 그러나 코스모스에 대한 시가 아니다. 본문에 코스모스는 나오지도 않는다. 다만 그러리라고 짐작되는 코스모스가 있을 뿐이다. 다른 하나는 1연과 2연의 공간이다. 고향을 떠난 삶과 고향에 대한 바램이다. 하지만 정황상 그 고향도 제대로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뜬금없는 비약에도 이 시가 자연스러운 것은, 그것이 이 시가 노래라는 증거다.

〈함성호·시인〉

## | 발 언 대 |

# 나는 자식이 많다

**허충기** 건축사
(주)나라 종합건축사사무소
〈충청남도건축사회〉

일반인들에게 건축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물으면 "집을 그리는 사람?", "집을 설계하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등 정확하게 건축사의 역할과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건축 시공을 하는 사람, 인테리어 하는 사람과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미디어 속에 비치는 건축사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게 묘사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건축물 해체 현장을 지켜보며 '우리 건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라는 물음을 시작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직업인으로서 건축사의 일을 살펴보면 크게 기획에서부터 생성, 유지관리, 멸실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기획단계에서 우리는 건축물의 부모로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건축기획 및 사업성 조사, 총괄계획 및 마스터플랜, 프로젝트 관리 등을 한다. 쉽게 말해 현황과 여러 가지 법규 검토, 각종 설비들을 종합해 건축물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한다.

다음으로 생성단계에서는 잘 준비된 계획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한다. 즉, 건축물이 태어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 챙겨가며 준공이라는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태어난 건축물이 살아가면서 아픈 곳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세심하게 돌봐주는 것이 유지관리 단계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멸실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부모로서 만감이 교차하는 단계이다. 건축물이 지어져서 사용되고, 이제 소멸되기까지 역할을 다한 후 추억을 남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짐과 함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필자가 생각하는 건축사는 이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탄생에 관여하는 매우 경이로운 직업이며, 한편으로는 소멸하는 과정까지 지켜봐 줘야하는 자식 많은 부모라는 생각이다.

설계 경기도 어려운 가운데, AI 프로그램인 챗GPT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많은 건축사분들이 사회의 변화에 걱정하기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닐까? 건축물의 부모로서 '건축사'라는 이 세 글자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어보자.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포토 에세이

### 맞배지붕 위의 수묵화

우리나라 자연은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색을 보여줍니다. 자연이 만들어주는 오색은 전통건축의 배경이 될 때는 오색의 색상보다 수묵담채화 같은 무채색이 전통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배색이 됩니다.
구름 낀 어느 날의 맞배 기와지붕은 자연과 어울려진 무채색의 농담으로 여백의 아름다운 구도를 만들어 냅니다.
한 폭의 수묵담채화를 그려보는 듯….

**정익재** 건축사 · KN 건축사사무소

## 건축만평

**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14,4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7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다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 협회 의무가입
# 설명회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1층 대강당

1차 2023.06.27.TUE
14:00

2차 2023.07.18.TUE
14:00

| 구분 | 행사내용 | 비고 |
|---|---|---|
| 14:00~14:05 | 개회 및 국민의례 | 김철훈 총무이사 |
| 14:05~14:10 | 참석자 소개 | 권연하 부회장 |
| 14:10~14:15 | 인사말 | 석정훈 회장 |
| 14:15~14:20 | 협회 홍보동영상 상영 | |
| 14:20~14:40 | 협회비전 및 정책 방향 | 석정훈 회장 |
| 14:40~14:50 | 협회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박성준 부회장 |
| 14:50~15:40 | 건축사 윤리규정 강의 | 함인선 건축사 |
| 15:40~15:50 | 회원지원센터 및 건축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 박춘하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장 |
| 15:50~16:00 | 질의응답 | |
| 16:00 | 폐회 | |

참가시 건축사 실무교육 윤리(1시간), 자기계발(1시간) 총 2시간 인정

대한건축사협회